

2020년 6월 7일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시 107:1-7)

오순절을 기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동참케 함으로써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에 관한 큰 일을 알고 동참하는가 라는 문제와 이것을 위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의미를 살피고 이에 따른 기도의 중요성을 살피겠습니다.

[1]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중요성은 매우 큼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주의 자녀로서 새 신분을 얻은 사람이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은 창 1:26-28; 창 2 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동물과 식물을 대하며, 에덴의 삶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아바드와 샤마르),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삶이 축복과 소망을 갖도록 돕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위한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예: 목수가 의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흠이 난 나무를 다듬는 작업은 그 다음 최종목적을 위한 것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인간을 통해서 마침내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를 떠난 사람을 구원하여 선한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관계, 속한 사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 애쓰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의 중요성

우리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가족과 사람들, 사건들로 인해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에 기초하여 행동과 태도, 말, 표정이 나타납니다. 이런 나의 모습에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반응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관계와 일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협력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갖지만 때로는 갈등과 고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함몰되면 구원은 받았더라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한 순방향으로 가는지, 역방향으로 가는지를 말씀에 의지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방향으로 가는 데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요리에 비유하면 양념 역할 정도가 아니고, 불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인도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 107 편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고백합니다. (단락: 1-7 절; 8-14 절; 15-20 절; 21-30 절; 이하)

4-5 절과 10-12 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의 처한 고통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길을 잃었으면 찾아야 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니 음식과 물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기력이 빠져서 찾을 수 없는 나의 한계에 빠졌다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난제들, 개인적인 고통의 강들, 누구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묻게 됩니다. 두 가지: (1)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2) 나와 세상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중 핵심은 여기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섭식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창조의 역류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선택일 수 없습니다. 호흡과 같은 기도의 필연성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기도자들은 자기 기도가 진짜냐 가짜냐에 쏠리지 않고, 왜 이리 응답이 더디시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들, 또 요한 계시록의 순교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올리는 기도 속에서 속히 주님의 일을 행하시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계 6:11 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

(2) 또는 응답이 주님의 방식과 스케일로 주어집니다.

계 8:4 성도의 기도가 올려진 후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쏟아낼 때 심판(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자의 자질을 갖추어 모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봅시다>

1. 나의 기도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고 있다면 방향전환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정황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순행인지 역행인지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2.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맞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나의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훈련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